



2010년 개발협력 보고서

국어 개요

- 개발 협력 보고서는 OECD 개발 원조위원회 (DAC)가 발간하는 국제 원조의 최신 동향에 대한 통계와 분석을 담은 핵심 연례 참고자료다.
- 밀레니엄 개발 목표(MDGs)를 달성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5년에 불과한데 여전히 할 일이 많은데 최근 해의 경제, 식량 및 기후 변화 위기로 이는 더욱 힘들어졌다. 보고서를 통해 DAC가 정치적 의제에서 개발 측면을 부각시키고 개발공동체의 원조 증가 및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두면서 신속히 대응했음을 알 수 있다.
- 경제가 불확실한 시대에는 원조에 그에 합당한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오용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맞서 개발공동체는 부패에 초점을 두고 확실한 개발 효과를 설정하여 알렸으며 역량 구축을 위해 개도국 고유의 제도를 점점 개선하고 MDGs 실현에 중요한 단계인 개도국의 30% 빈민 인구를 위한 노력을 강화했다. 또한 보고서를 통해 DAC 회원국이 기후 변화 문제를 각기의 정책선택 부문에서 다뤄지게 하고, 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앞으로 수십년 간 그들의 원조를 보다 효과 있게 만들려고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 아울러 동 보고서는 온라인에 게시하여 OECD DAC의 핵심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이들의 분석과 통계에 신속하고 수월한 접근을 원하는 원조공동체의 요구에 부응하려 한다.

“식량, 에너지, 경제위기가 겹치면서 초래된 상황은 개발의 실질적 영향이나 이에 대한 입증방법 및 기초가 되는 요소, 그리고 이를 통제, 설명할 수 있는 우리의 역량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면서 개발 공동체에 큰 과제를 던지고 있다.” 에크하르트 도이처 OECD DAC 의장

개발협력보고서는 매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 의장이 발표한다. 개발위원회는 주요 양자 공여국들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포럼이며 이 보고서를 통해 국제 원조의 최신 동향에 대한 자료 및 분석을 제공한다.

제1장 서론에서 DAC 도이처 의장은 밀레니엄개발목표 달성까지 남은 기간은 5년에 불과하지만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지구가 직면한 경제, 식량, 기후 변화에 따른 위기로 이 목표에 합의했던 2000년보다 목표 실현이 힘들어진 상황이다.

이에 맞서 DAC는 지난 1년 간 위기 여건에서 개발 측면을 주요 정책의제로 계속 제기하고 개발공동체가 최상의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데 힘썼다. 도이처 의장은 개발 공동체는 위기 상태나 진화 방식을 당연시해서는 안 되며 대신 원조 효과성에 관한 파리 선언과 아크라 행동계획(부록 A)에 담긴 효과적인 원조 원칙에 대해 명확하고 일관된 초점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세상은 근본적으로 변했지만 우리의 개발 목표는 똑같다.”

약속 실현

금융경제위기의 범위가 명확히 드러나면서 개발공동체는 공적개발원조(ODA) 규모가 타격을 받을 것인지를 면밀히 살폈다. 다행스럽게도 DAC가 발표한 2008년도 ODA 통계를 보면 원조 규모는 1,215억불에 이르면서 지금까지 최고 높은 절대수준을 기록하였다. 대부분의 DAC 공여국이 추가 원조 증액을 계획하고 있지만 글렌 이글스 G8 정상회담과 UN 밀레니엄 +5 회의에서 합의된 원조 규모를 2004년 불변가격으로 2010년까지 1,300억불 증액한다는 약속을 실현하려면 아직 갈 길이 남아 있다.* 실제로 모든 공여국들이 약속을 지킨 것은 아니며 이는 모든 국가에 대한 신뢰가 달린 문제다(제1장, 제8장). DAC는 공여국의 원조 공약 현황을 계속 조사할 것이다.

공여국이 원조제공 개선 측면에서 이룬 진척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는 상업 조건을 달지 않은 무상 원조 규모로 이른바 공여국의 공급자에 대한 “비구속성” 원조를 뜻한다. DAC 회원국은 아크라 행동계획을 토대로 구속성 원조 감축 차원에 뚜렷한 발전을 약속했다. 공여국에 의하면 2007년 통계상 양자간 ODA의 79%가 비구속성 원조라고 하기는 하지만 공여국의 공급자로 가는 원조 비중은 여전히 우려 대상이다.

* 다수의 목표가 GNI 비율로 나타내져 공여국의 GNI 감소와 함께 총 예상 원조규모가 현저히 줄면서 2004년 가격 기준으로 1,240억불에 머물렀다.

원조 효과 입증

긴축 경제 시대에서 공여국 국민은 개도국 국민과 마찬가지로 원조가 효과적이고, 적합한 가치를 제공하며 부패한 정부에 의해 오용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원한다. 이에 개발공동체는 다음과 같은 대응책으로 맞서고 있다.

- 부패 해소. 원조 효과성에 관한 파리 선언에서는 부패 방지 노력을 통해 개발원조의 긍정적인 영향과 질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명확히 설정하고 공여국들은 개도국이 이끄는 정책에 동조하여 반부패 개혁에서 이들의 주도권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개도국의 반부패 노력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약속한다. 공여국들이 부패 발생 확률이 가장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조달 및 재무 관리제도 등과 같은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 할애한 지출 규모는 꾸준히 늘었다 (제7장, 그림 7.1).
- 영향 관리. 대부분의 DAC 회원국에서 성과 위주로 개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는 바, 즉다 빈곤 감축과 기타 MDGs에 미치는 영향의 최대화를 전적으로 꾀하고 있다(제2장). 예를 들어, 더 많은 공여국들이 그들 및/또는 상대 수원국이 예상했던 결과에 기초한 사업 과제 및 계획을 알고 있는 상황이며 사업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여 잇따른 영향을 보다 잘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성과에 대한 정보가 기타 사업 및 정책을 알리는 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장치를 마련하는 공여국이 늘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정착하고 기존의 수량 위주에서 빈곤과 기타 개발 우선순위에 미치는 효과 위주로 전환하는 것은 모든 공여국에 던져진 도전 요소다.
- 영향 측정. 개발 목표에 미친 영향을 측정하는 평가 작업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 장치다. DAC는 공여국들이 평가 작업을 개선하고 서로 공유하는 목표를 향해

협력할 수 있도록 평가 차원에 새로운 품질 기준을 개발하고 있다(제2장).

- 원조 효과 홍보. 원조 자금이 잘 관리되고 효과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알리는 것은 쉽지 않다. 파리 선언 원칙에서는 공여국의 공동 작업과 국가 체제를 통한 원조 제공 방식처럼 절차 측면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성과를 특정 공여국의 공으로 돌리기 어렵다. DAC 회원국은 원조 효과에 대한 정보 제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예로, 일본은 개발 진행 상황을 감독하기 위해 만들어진 수원국의 자체 성과평가들을 보도 차원에 활용하는데 이러한 접근 방식은 공여국이 수여국과 합의한 공통 지표를 활용하게 만든다(제2장).

효과적 개발을 위한 역량 구축

공여국이 수원국의 개발 우선순위와 고유의 개발 정책 및 관행 절차를 존중해야 원조가 효과적이 된다. 즉 원조 제공에 있어 수원국 고유의 관리제도를 사용해야 함을 뜻한다(제3장). 수십년의 개발 경험을 통해 국가 제도 및 정책을 우회하는 것은 국가가 스스로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역량을 약화시킴을 알 수 있다. 공여국들의 원조 노력 차원에 본격적인 수원국 제도 사용을 권장하는 OECD 목표는 과연 이뤄진 것일까? 2008년 조사된 54개 개도국 원조 가운데 수원국 재무관리제도가 사용된 경우는 45%에 그쳤으며 (제3장, 그림 3.1) 2005-07년 사이 수원국 제도 사용 빈도가 줄어든 경우도 꽤 있었다.

공여국은 수원국의 부패라든지 역량 부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원조 자금을 수원국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수원국 제도 활용이 갖는 잇점을 충분히 알거나 알리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이에 대해 느끼는 위험과 잇점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 왜냐면 그 잇점은 장기적으로 제도 차원에 확산되기 때문이다,

OECD/DAC는 공여국의 수원국 시스템 활용을 장려 및 지원하고 있으며 일부 공여국이 자체 사업내 수원국 제도 사용을 체계적으로 지원 및 평가하면서 향상을 이룬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유럽위원회 경우, 수원국 제도 활용에 대한 진행 상황을 감독하고자 내부 정보 시스템을 구축했다. 마찬가지로 일부 공여국은 수원국 제도가 잘 기능하도록 시민 단체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DAC는 수원국 제도 사용 활성화를 위해 가나와 미국의 공동 주재 하에 공여국과 수원국을 포함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만들었다.

앞으로 개발은 더 이상 여느 때처럼 선택 사항이 아니다

MDGs 실현 과정에서 던져진 과제는 세심하고 편중된 개발 아젠다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원조를 넘어 전세계적 요인이 개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입증됐다. 기존의 원조 부문을 넘어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근본적인 개혁과 합의된 노력이 현재 절실하다.

첫째, 기후변화 문제 해결 없이는 다른 핵심 개발목표 달성을 향한 진척도 심하게 저해될 것이다(제5장, 표 5.1).

선진국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최상의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탄소 성장은 모든 국가들이 추구해야 할 사항이다. 개도국은 이미 변하고 있는 기후 영향에 적응하도록 도움이 필요하며 이 적응 방안은 경제정책, 개발 사업 및 국제원조 노력에서 핵심 요소가 돼야 한다. DAC는 기후변화 적응을 지역 차원에서, 사업 차원에서 그리고 국가경제 차원에서 이뤄지는 개발 협력으로 통합시키는 정책 지침을 마련했다. 개도국은 기후변화 적응을 통합하는 노력을 주도해야 한다. 동시에 국제 공여국은 기후 감독 또는 미래 기후 변화의 영향과 핵심 적응 사안을 국가 차원에서 평가하기 위한 개도국의 노력을 직접적인 자금 지원이나 자체 역량 구축에 기여함으로써 결정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제5장).

둘째, 밀레니엄 개발 목표 달성 차원에서 많은 국가들이 진척을 이룬 반면 개도국의 3분의1은 뒤떨어진 상황이다(제6장, 그림 6.1) 50여개 국가로 구성된 최대 빈민국 그룹은 대부분이 폭력 분쟁과 취약한 지배 구조로 상황이 악화되었다. ODA 총규모의 38%가 이들에게 주어진다 해도 MDGs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취약 국가의 여건을 더욱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취약 국가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을 인식한 OECD 개발장관은 이들에 대한 모범적인 개입 원칙 10개를 수립했으며(2007) 이러한 원칙을 시행한 6개 취약 국가를 조사한 결과, 상기 원칙은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행동 지침을 제공하는 유용한 틀임이 입증되었다.

셋째, 대부분의 저소득 국가가 무역을 경제 성장과 빈곤 감축 전략의 핵심 요소라고 여긴다. 시장이 점점 개방되면서 국민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교역에 따른 이익을 개도국 간, 혹은 개도국 내에 형평성 있게 분배할 정책이 필요해진다(제4장). 특히 교역량이 10% 정도 줄면서 빈민 감축과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무역의 원동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무역을 위한 원조 계획은 개도국이 직면한 정보, 정책, 절차 또는 인프라 차원의 장애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국제시장 진출에 대한 혜택을 높이고 부유 국가와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한다. 이 계획은 무역을 위한 원조 수여와 공여국에 의한 자원 증가 형태로 2005년에 개시한 이후로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고 최근 OECD 조사 결과에 드러났다.

새로운 글로벌 환경 아래, 이렇게 중요한 부문에서 진전이 이뤄졌다는 점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DAC의 변화를 의미한다. 요컨대 미래의 DAC는 원조나 개발 부문의 정책뿐 아니라 모든 영역의 정책을 일관되게 하고, 기후 변화와 세계무역 형평성 같은 글로벌 사안을 정책 형성 및 시행 차원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훨씬 더 광범위하게 전세계 개발공동체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에 동료 평가나 통계 자료와 같은 보다 나은 정책 도구가 필요할 것이며(제8장) 영향 조사와 정보 교환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DAC 가입을 확대하는 등 공동 작업을 보다 포괄적이고 선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DAC 의장 말을 빌리면, “개발협력은 공동 미래에 대한 전략적 투자라고 보아야 한다.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개발협력은 안정, 경제 통합, 인간 안보, 모두를 위한 기회를 구축하는 핵심 수단이다.”

© OECD 2010

본 개요는 OECD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본 개요의 복제는 경제개발협력기구의 저작권 및 해당 출판물의 제목이 명시될 때에만 허가됩니다.

본 개요는 다음과 같은 영어 불어 제목으로 출판된 경제협력개발기구 출판물 중에서 발췌한 내용을 번역한 것입니다.

본 개요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온라인 서점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www.oecd.org/bookshop/

자세한 정보는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ublic Affairs and Communications Directorate 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rights@oecd.org 팩스: +33 (0)1 45 24 99 30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AC)
2 rue André-Pascal, 75116
Paris, France



본 기구 웹사이트 www.oecd.org/rights/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